

역의 대법제자들을 대신하여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에게 다 감사하다. (박수)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희망하건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더욱 높이 인식하며 더욱 빨리 층차를 돌파하고 빨리 원만을 이뤄 개공개오(開功開悟)하기를 바란다. (박수)

그것 역시 마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긴긴 세월 속에서 법에서 빛나간 후 생긴 생명인데 그것은 우주가 나빠진 것을 전혀 모른다. 바로 이런 유(類)의 생명이 그것들 자신의 이 일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이 법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정법을 방해하며 극히 악(惡)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는 아니지만, 오히려 마(魔)마저도 전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들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가짜이고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다.

겉모양은 신의 형상이지만, 사실 그것은 선(善)한 생명이 아니다. 이 세력이 내가 오늘날 이 대법을 전하는 중에 심한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나의 공(功)이 일단 그것들을 건드릴 때면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이 명백해졌을 때 그것들은 자신이 철저한 소멸 중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법을 바로잡는 중에서 깨끗이 제거되는 말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일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어쨌든 이 문제를 말하자면 대단히 크며 관련되는 문제가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이 구세력은 이미 매우 오랫동안 존재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생명이 법에서 빛나갔음을 믿지 않고 또한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음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은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고 있다. 최고의 그러한 신 그것들도 협력하고자 일련

의 체계적인 배치를 했다. 그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 층차마다 관통되어 내려온 것에는 모두 이런 배치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의 표준, 그것들의 배치가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 고대에서 오늘날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줄곧 오늘날 인류가 어떻게 법을 얻을 것인가를 배치했다. 그것들은 사람의 신체와 사람의 사상을 빌려 외계인의 지혜를 남겨놓고자 했다. 바로 이러한 일 역시 가장 낮은 층차에서 내가 법을 바로잡아 사람을 제도하는 데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조성했다. 그것들이 이 일을 잘하고자 한 일체는 사실상 모두 방해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류에 끼친 가장 심한 파괴는 법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를 준 것이다. 특히 이 과학은 신을 믿지 않고, 전통적이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사상과 행위를 부정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법을 얻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외계인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신(神)이 아니며, 그것들 역시 그런 신들이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모른다. 다만 신이 조종하여 이 문을 열어놓고 그것들을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외계인은 그야말로 득을 본 셈이다. 그것들은 일찍부터 인체를 갖고자 했다. 어떻게 하든지 누구도 단속하지 않으므로 온갖 방법을 다

이 이들간의 법회, 특히 어제 오후 수련생들의 발언을 통해 많은 수련생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법회는 당신들에게 수련에서 부족한 점을 찾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당신들의 수련 신심(信心)을 북돋워 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법회에서 얻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수련 중에서 모두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하며 진정하게 자신으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제고하고 빨리 정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관건적인 것이다.

법회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욱 잘 제고해 올라올 수 있게 하는가이다. 나도 여러분의 법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져 많은 일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오늘 해답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분은 많은 일에서 모두 명백해졌다.

본래 이번 법회는 미국 서부지역의 지역적인 교류회였으나 지금은 확대되었다.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 이번 법회의 심득을 갖고 감으로써 최소한 당신들 자신이 이번 법회를 통해 제고가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당신이 천리(千里)를 멀다 않고 온 보람이 있을 것이다. (박수)

제자: 각국, 각 지역에서 온 제자들이 모두 본국과 본 지

달은 이치는 사람의 언어로는 써낼 수 없다. 그러므로 쓰려고 하면 표면문자의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되는 것으로서, 되도록 정확한 단어를 찾아 그를 번역하면 개인의 관념이 잘 섞여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제자: 저는 밝고 흰 法輪(파륜), 중간에는 붉은색 卍자 부호를 여러 차례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빗나간 것입니까?

사부: 아니다. 당신이 본 색깔은 당신의 천목이 원인이 되어 조성한 것이며 빗나가지 않았다. 이 法輪(파륜)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는 우주 중에서 몇 가지 색깔의 변화가 있다. 적등황록청남자(赤橙黃綠靑藍紫), 유색, 무색, 여러 가지 색깔이다.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색깔이 산뜻하고 아름답다고 느껴 우리 대법의 상징으로 삼는다. 卍자 부호의 황금색이 변하지 않고 태극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것의 색깔은 모두 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의 그 색깔 구성은 인류의 이 공간의 색깔처럼 분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의 색깔은 더욱 보드랍고 매끄러운 물질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에 그것의 광채는 부드럽기 그지없어 매우 아름답다.

써서 인체를 얻고 인류의 이러한 곳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몹시 복잡한 일이다. 방금 이렇게 말한 것만도 대단히 큰 문제에 관련된다. 이것이 바로 왜 변이된 사회가 나타나고 오늘날 이런 인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수련생은 말한다. “지금 얼마나 되는 제자가 있는지 사부님께서서는 장래에 다만 몇몇 제자들만을 이끌어 원만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는 여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대법을 심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오늘날 또 여기에서 무슨 법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그 몇 사람을 단독으로 불러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중생을 널리 제도할 것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 어떤 사람은 믿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은 법 공부를 어떻게 한 것인가? 이것은 문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부님께서서는 어느 수련생의 몸에 붙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점화해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라고 한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는데, 당신 집의 육친의 입, 심지어 누구의 입이든지 나는 모두 그의 입을 빌려 당신에게 몇 마디 말하고 당신을 좀 점화해 주는데 이런 것은 있다. 누구의 몸에 붙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가 있으며 필연코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건 바로 부체(附體)가 한 짓이다.

제자: 저는 속인에게 흥법할 때 먼저 『전법륜』을 세 번 볼 것을 요구하며 배우려 한다면 다시 동작을 가르칩니다.

사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입문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혹은 저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연공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 천천히 인식하게 해도 괜찮다. 혹은 그에게 책을 한 권 주어 그가 잘 보고 배우려고 생각해도 괜찮다.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그것을 규범화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책을 한 번 읽고 좋다고 여겨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연공하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이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 더 봐야 합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새로 온 사람은 먼저 책을 볼 수 없으며 사고하고, 깨닫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부: 깨달아도 좋고, 사고해도 좋고, 생각해도 좋은데 법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

또 그가 번역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는 두 사람이 한 경지에 있지 않고 한 층차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 깨달았지만,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그가 틀렸다고만 느꼈다. 그럼 그가 일단 말한다면 그 자신도 틀렸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도 틀렸다고 느낀다. 무엇 때문인가? 고층차의 이치는 오로지 마음으로 터득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이런 한마디 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전법륜』 이 책에서 고층차의 이치를 써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당신은 써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층차의 이치는 사람에게 제시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나타낼 수 없고 다만 당신이 수련과정 중에서 볼 수 있으며, 수련자는 알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바로 이 이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을 번역하려면 다만 문자의 가장 표면적인 이 단어의 뜻을 번역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표면적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내가 배후의 내포를 그에 가하면 자연히 법으로 되어 작용을 일으킨다. 번역 일은 바로 이리하다.

당신들은 흔히 모두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논쟁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말해 놓고도 자신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을 발견할 것인데, 바로 당신은 단지 마음으로 터득할 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층차에서 깨

다. 태극권은 심법(心法)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태극권의 진정한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는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크다. 우리 동양 사람은 신족통(神足通)이라는 이런 신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한 노인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아주 천천히 가며 아주 느릿느릿하게 걸어간다. 그러나 당신이 말을 타고 가도 그를 쫓아가지 못한다. 이는 그가 한 공간 속에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마술이 대단히 기묘적인 데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들이 때로는 아주 약한 이런 것을 가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오히려 느끼지 못한다. 그들 자신도 모르며, 그는 기술이고 익숙해지면 교묘한 기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하지만 공능마술이란 될 수 없다.

제자: 저희가 대법 서적을 번역하고 검토할 때 어떻게 해야만 자신의 사람 관념, 사람의 것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부: 중국대륙에서 그들이 예전에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늘 논쟁을 했다. 왜 논쟁했는가? 그는 늘 다른 사람이 번역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가? 모두 책을 많이 보아야 하고,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에게 반응되어 나온 일부 상태에 대해 당신이 정확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正悟)이다. 무엇이 깨달음(悟)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사고하고 생각한다는데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반응되어 나온 모든 사상을 정말로 모두 걸러내야 하며 어느 것이 자신의 것이며 어느 것이 좋지 못한 사상인지 걸러내야 한다. 나쁜 사상은 역시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한다고 해서 일부러 무엇을 사고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이 법을 인식함에 모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즉 책을 펼쳐 보면 좋다고 느꼈다. 왜 좋다고 느꼈는가? 당신은 이지가 있고, 사상이 있으며 속인 사회 중에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법이 좋음을 안다. 보기만 하면 바로 알지만, 필경 이것은 감성적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책을 봄으로써 당신은 갈수록 그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럼 당신은 또 나머지 무엇을 더 사고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배운 이 법이 이상하지 않는지, 이 한 편에서 말한 것이 이치에 맞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뼈뜰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다.

제자: 홍범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계의 고위층에 진정한 수련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이젠 그가 어느 부문이고 어느 사회계층인가를 상관하지 말라. 대법이 전해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지 단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누가 권력이 있다 하여 여러분에게 ‘모두 와서 배우라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자. 그럼 어느 하나 진심인 것이 있겠는가? 그는 당신이 강요해서 온 것이고, 명령해서 온 것이며, 혹은 체면에 못 이겨 온 것으로서 대법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정말로 배우러 와야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직위라도,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우리는 모두 그의 사람 마음을 보는 것으로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일부분 사람이 법을 얻게 되면 우리 대법을 널리 전하고 대법의 과학성을 실증하는 데 아마 더욱 이로울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법을 수호하려고 하며 대법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좋다. 그러나 흔히 또 당신들 자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린 것으로서 그가 얻고자 해야만 비로소 된다. 그가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제자: 저는 서양인으로 프로마술사입니다. 저는 초상(超常)적인 능력을 쓰지 않고도 마술사의 마술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몹시 모순됩니다.

사부: 마술은 기교이며, 손놀림이 빠르거나 혹은 거기에 도구의 엄폐를 이용하는 것을 더한 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공능과 하나로 혼합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구체적인 기교가 숙련될 때 일종 공능과 같은 상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자를 벗어 이리저리 던지는데 이쪽에서 던지면 저쪽에서 받고 대단히 빨리 던진다. 그러나 보면 그의 손동작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받을 수 있다. 바로 시간이 길어지면 그도 일종 공능과 같이 시차를 균형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종 작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극권이 느릿느릿한데, 그것을 어찌 실전(實戰)에 쓸 수 있겠는가? 당신이 보기에 그것은 느릿느릿하지만, 그것의 공능이 시간을 균형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이 공간의 시간을 쓰지 않으며 당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느리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빨리 간다. 당신이 주먹을 아무리 빨리 날리더라도 그보다 빠르지 못하고, 그는 느릿느릿하게 이동하지만, 이미 당신을 친

지 않은 일을 하게 하며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데도 마음속으로 변이된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도 이것이 자신이라고 여긴다. 그 관념이 솟구쳐 나와 당신으로 하여금 동성(同性)을 좋아하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아니며 또 당신을 해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장기간 피동적으로 순응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또 아주 좋다고 느껴 동성애를 하게 된다. 이 사상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제자: 저는 올해에 50세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들은 저를 16, 7세로 봅니다. 이는 다른 공간의 저입니까, 아니면 수련하고 있는 저입니까?

사부: 나는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당신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전 당신들의 본질적인 나이가 아니며 당신들의 진실한 나이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 이 시간, 환경 중에서의 구현이다. 아마 당신이 올해에 6, 70세일 수 있으나 당신의 元神(웬선)은 오히려 7, 8세일 수 있고, 아마 당신은 4, 50세이지만, 당신의 元神(웬선)은 이제 17, 8세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수련을 거친 후 당신 사람의 표면을 포함하여 모두 가장 좋고 가장 젊은 상태로 전화될 것인즉 이것은 확실하다.

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누가 없더라도 대법은 걱정 없다. 어떤 수련생은 조급해한다. 우리 연공장에서 감히 수련생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라고 말만 하면 수련생은 연마하지 않고 가버린다고 한다. 내가 말한다면 아마 대법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만약 이 수련생이 한동안 배우고도 여전히 이러하다면 갈 테면 가라고 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련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고 머릿수만 채우는 그런 사람도 필요 없다. 백 명 중 아흔아홉 명이 모두 진심이 아니면 모두 가도록 하라. 남은 한 사람이 진심이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과이다. 한 사람을 제도한다 해도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법을 수련하고 있다.

제자: 고비를 넘을 때, 때로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느껴지면서 마음이 단번에 흥분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같은 고비가 또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부: 방금 어느 수련생이 나에게 물었다. 주천(周天)이 통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전에 이런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째서 지금 또 반복됩니까?”라고 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이 수련 중에서 최대한 속인 사

회의 상태에 적응하게 하려고 당신의 잘 수련된 그 부분을 미시적인 테서부터 당신에게서 격리해 주었다. 잘되지 않은 이 부분, 그것은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가 존재할 것이며 여전히 이렇게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서 수련이 된 후에 다시 격리한다.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당신 때 한 층의 신체에 모두 기제(機制)가 있고, 당신의 많은 층차의 신체 속에는 좋지 못한 사상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지 못한 사상, 그것은 가장 표면적이고 아주 조잡한 그런 물질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또는 더욱 미시적인 물질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나쁜 사상은 미시적인 데에서 표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 한 면(面)이 합격하였다면 한 층을 청리(淸理)해 내고 격리한다. 그럼 다음 한 층에 또 있으므로 여전히 당신이 수련 중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저도 제가 괜찮게 수련되었고 한동안 아주 좋다고 여겼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좋지 못한 사상이 나오게 됩니까?”라고 한다. 이는 당신의 잘 수련한 그 한 부분이 이미 격리되었고 수련되지 못한 그 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어떤 때에 나오는 사상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 물질이 더욱 미시

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 가지 어떤 것을 좋아해 관념으로 형성될 때 그것은 갈수록 더 강렬해질 것이다. 만약 심태가 변이된 것이라면 서서히 이 변이사상은 확대되어 더욱 변이되는 것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는 바로 그 정 속의 일종 변이된 것이다. 사실 이것도 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단지 변이된 것일 뿐이다.

사람은 이때에 이러한 것을 모두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정확한 인식 때문에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역으로 당신을 주재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 자신의 사상이라고 여긴다. 사람은 여태껏 자신의 관념을 자신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다. 자신이 형성한 그러한 사상업력은 당신도 물론 모른다. 사상업이 반응되어 나온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당신은 여태껏 이것이 자신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 사상에서 반영되어 나온 생각 그것이 꼭 당신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확한 사상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대법을 배우기 때문에 곧 사람에게 바른길을 견도록 하며 더욱 잘하도록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대법 중에서는 무엇이든 다 시정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그 사상을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해치고 있고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답

의 환경 속에서 생긴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탈했다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사람이 정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피동적이지만, 사람은 주동적이라고 여긴다.

제자: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저는 眞(眞)·善(善)·忍(忍)을 믿습니다. 제가 수련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부: 현대 사상의 그릇된 인도, 그릇된 선전의 유도와 이런 환경의 침식으로 사람은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신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대법을 배워 당신의 그런 부정확한 사상과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내가 말했듯이 왜 동성애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사람이 피동적으로 정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집착할 때면 그것이 당신의 사상 중에서 여러 가지 집착이 생기게 하고, 이로부터 여러 가지 관념, 나아가서 변이된 관념이 형성될 것이다. 당신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의 동작이나 혹은 형상을 좋아하게 되어 당신은 오랫동안 이런 것을 좋아하는 데 집착할 것이다. 혹은 당신이 이 사람의 태도, 표현을 좋아할 텐데, 시간이 오래되면 관념으로 형성되어 그의 이런 표현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점차 이것이 더욱 강해져 그것이 당신의 사상을 주재하게

적일수록, 그것의 에너지는 더욱 크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힘이 더욱 클수록 그것이 일으키는 나쁜 작용 역시 더욱 크며 그것이 사람을 주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표면에서는 물질이 표면일수록 에너지가 더욱 작으며 더욱 작다면 능력이 더욱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더욱 작고 더욱 표면적일수록 더욱 나쁘다. 그럼 더욱 나쁘고 더욱 낮을 때 그것 역시 에너지가 더욱 없다. 이는 이런 관계이다. 그러므로 비록 당신이 많은 좋지 못한 것을 감소시켜 그것이 아주 취약하게 변했지만, 그것이 더욱 나쁘게 표현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이미 이 단계까지 수련되었다면 이는 당신의 사상 중에 일단 좋지 못한 염두가 생기면 당신으로 하여금 금방 의식할 수 있게 한다. 초기에는 이것을 해내기가 몹시 어렵다. 나쁜 사상은 한 층 한 층씩 점차 제거된다. 그러나 당신들은 잘 알아들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기를, ‘아, 본래는 이런 일이었구나. 그 나쁜 사상이 다시 나타나도 나는 그것을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럼 만약 당신이 자신을 단속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또 당신은 수련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당신은 그것을 푹푹히 분간해야 하며 그것을 제약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자신을 수련하고 있음을 알고 좋지 못한 사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수련하

고 있는 것이며, 바로 끊임없이 감소하고 끊임없이 감소하여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전부 표준에 도달하면 바로 원만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다.

제자: 북미(北美)제자들은 많은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인에게 홍법을 하지만, 진정하게 법을 얻은 미국인은 여전히 아주 적습니다.

사부: 우주 중의 구세력, 그것은 일련의 배치가 있다. 그것의 배치는 내가 오늘날 하는 일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것들 누구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예전에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이치를 말한 적이 있다. 예컨대 신을 말한다면, 이 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는 그보다 높은 곳에 또 신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신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와 같지 않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들은 이치로는 모두 믿는다. 그러나 당신들은 신의 사유와 같지 않다. 당신들은 모두 법(法) 속에서 인식한 것이다. 신은 무엇이든 다 보았고 무엇이든 다 명료하다고 느낀다. 당신이 위에 또 신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는 믿지 않으며 정말로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과위가 결정한 것이며 층차가 결정

에게 형용해 줄 방법이 없다. 내가 사실 당신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말했지만, 모두 한 개의 체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지구는 마치 한 개 입자와 같으며, 지구와 같은 이러한 입자가 우주 천체의 일체에 널리 분포된 것이 마치 공기 중에 이렇게 큰 분자가 공기분자로 구성된 것과 같이 일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그 천체가 얼마나 크겠는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준 것은 한 체계 중에서 말한 것으로서 그 복잡한 정도는 그야말로 형용할 언어가 없으며 그리려 해도 그려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조의 복잡함은 마치 무수한 조(兆)의 입체교차 면을 함께 해도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명확히 말하기가 몹시 어렵다. (박수) 하지만 당신들은 『전법륜』 중에서, 일정한 층차로 수련되었을 때면 당신들은 스스로 생각 중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것이 방대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말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박수)

제자: 왜 정은 이렇게 버리기 어렵습니까?

사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이란, 당신의 이 껍데기는 이 정 속에서 생기고 태어나서부터 이 정 속에 있다. 당신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이 신체 세포는 바로 이 정

제자: 사부님께서 쓰신 ‘인류를 다시 양성하자’, ‘변이’, ‘시간과의 대화’는 1996·1997년에 쓰신 것인데 왜 1998년에야 비로소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사부: 내가 당신들에게 보이고 내놓는 시간도 모두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로 써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나타났을 때를 기다려 내가 그를 내놓았다.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 우주의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 더 커짐에 따라 저의 시야와 흥금도 마치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사부: 당신이 다 말하지 않았는가. 사실 나는 당신의 용량을 확대하고 있는바 당신들의 일체도 모두 따라서 확대되고, 증가한다. 나는 천체란 우주 중에서 역시 먼지 한 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어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그것보다 억 배, 조 배 높은 것 역시 우주의 한 알 먼지이다. 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주의 최종(最終)이 어찌 된 일인지 모른다. (박수) 아울러 이 우주의 안 역시 무척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람의 사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러한 언어가 없기에 나도 당신들

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지혜가 증오(證悟)한 것이다. 그의 아래 혹은 그와 동등한 층차라면 그것은 일목요연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의 이하에 있는 모든 생명으로 말하면 그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위대하다. 나에 대해서 그것들은 내가 그것들의 그 한 층차 중에서 나타낸 형상, 나타낸 방식을 모두 보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그것들의 존재형식보다 높은 것은 모두 보아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감히 그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나도 그것들과 같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당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 사실 그것들은, 나에게도 내가 해야 할 더욱 높은 일이 있음을 모른다. 그것들은 층층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 이 한 층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 한 층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층층이 장애를 배치했다. 흥법 문제에서 당초에 나 자신은 내가 법을 바로잡는 과정 중에서 2억 명이 법을 얻게 하려고 생각했다. 전 세계에는 70여억 명이 있기에 2억이란 이 숫자 역시 아주 작은 것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들은 1억 명으로 제한했고 그것들의 변이된 것을 고집하며 놓지 않았다. 매번 내가 한 층을 돌파하면 그것들에 또 그 위의 한 층 배치가 있으므로 나는 층층 층층…… 그것들을 돌파해 나

가야만 비로소 그것들의 이 일련의 배치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배치는 내가 법을 바로잡는 데에 매우 큰 저항을 형성했다.

제자: 많은 사람이 수련의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집으로 돌아가려는 관념을 세우고 있는데, 무위로 수련해야 더욱 좋은 것이 아닙니까?

사부: 신심(信心)이라든가, 동력(動力)이라든가, 혹은 어디로 가고자 함을 세워서 수련의 추진력으로 삼는 것은 원칙상 잘못이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 아직도 누락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무엇을 위해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되돌아가려고 수련하거나 혹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에 당신이 목표를 확정했거나 혹은 정념을 확정했다면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후 오로지 수련만 하고 다른 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당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층차에 도달한 후 당신들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그때가 되면 그것이 동력이 아닐지도 모르며 아마 일종 집착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여래 부처가 자비를 주장함을 말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층차의 그 신이

는 않았다. 특히 베이징에는 또 것처럼 오염을 조성할 산업이 많지 않다. 그는 연탄을 때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스팀을 사용하기에 큰 굴뚝도 아주 적다. 그러나 예전에 난로를 땀 적에는 집집이 연통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정도로 오염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이런 오염이 아니라고 말해도 물론 그는 믿지 않는다. 나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곧 그렇게 하기 좋아한다.

사실 바로 소훼(銷毀)된 미시 공간 중에 존재하는 그 몫이 좋지 않은 물질이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에서 떠서 500m 올라오면 푸른 하늘이 매우 좋은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이구, 마치 덮개를 씌워 놓은 것 같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기에 늘 흩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미시적인 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조사해 내지 못한다. 그것은 표면분자의 입자보다 작은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해 내지 못한다. 최후에 발견한 것이 질소화합물이었다. 질소화합물, 이것은(당신들 화학을 배우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유기물의 먼지로서 그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을 태우는 화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 그것은 사실 바로 좋지 못한 미시 생명의 소훼로 조성된 것이다.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모든 부동한 층차의 주요한 그 부분을 모두 나 여기에 잡아 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 그러므로 그것은 도망가지 못한다. 물론 문제도 있다. 소멸 과정 중에서 먼지처럼 소멸한 그것을 아래로 흩어버리는데 (그것이 나쁘므로 그것을 소멸했는데 마보다도 더 나쁘다. 소멸해 버릴 때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해서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베이징(北京) 여기로 떨어진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이징의 날씨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 이 베이징은 어찌 된 일인가? 최근 2년간 그 날씨를 보면 구름 같지만, 구름이 아니고, 안개 같지만, 안개가 아니며 공기 중에 떠도는 물질의 그 과립이 대단히 커서 눈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을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하면서 즉시 자동차의 매연 대책을 강구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자동차와 관계가 없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그것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지만, 공기 중에 뜬 물질은 주로 질소화합물이다. 미국은 자동차가 많기로 그야말로 대단하여 그 큰길에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달리지만, 몇십 년 동안 이런 정도로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오염이라고 말하는데 발전 중인 나라의 산업오염이 비록 상당히 심각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에 도달하지

보면, 무슨 자비인가, 자비라니 무슨 뜻인가,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나 다 알고 있다. 그는 당신의 자비라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본다. 이 이치는 승화된 것이며 법 역시 끊임없이 승화된 것으로서, 부동한 층차에서 생명은 모두 그에 대한 부동한 층차의 경지의 요구가 있다.

제자: 법회에 참가할 때마다 축진이 대단히 큰 것을 느끼지만, 집에 돌아간 후, 시간이 길어지면 또 정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부: 나는 어제도 수련생들과 이 문제를 말했다. 여러분도 모두 이런 감수가 있다. 당신들은 대법환경 속에서 사부가 말하는 것을 듣고 확실하게 마땅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며 접촉하게 되는 일체는 필경 속인 중의 이득인지라, 매사가 당신 개인의 이익문제에 연관된다. 이 사회 전반이 모두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다. 이 환경 속에서 당신들은 또 자기도 모르게 이 일체가 모두 이러하다고 느끼므로 당신으로 하여금 정진할 수 없게 하는데, 이것이 정진하지 못하는 주원인이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느슨하게 할 수 있

고, 이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쁘게 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환경이 복잡하여 수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으로, 것처럼 높이 갈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으며, 남들이 당신을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오늘날 이 환경에서 자신이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게 하려면, 내 생각에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제자: 미시적일수록 층차가 더욱 높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어제 부동한 층차의 하늘은 미시적인 데를 향해 아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당신이 상상하는 위와 아래가 없으며 지구는 둥근 것으로 아래 역시 위이다. 지구는 본래 둥근 것으로서, 사람은 때로는 거꾸로 되었다가 때로는 또 바로 서는 것으로, 사람의 그런 상하(上下) 관념이 없으며 주위 사면팔방이 모두 위이다. 나는 위를 향해 가는 것을 말했는데 사실 미시적인 것을 향해 간다고 이해해도 된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미시적인 데로 가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전법륜』 중에서 광년(光年)으로

신이 침대에 앉기만 해도 오래된 그런 괴로운 일들을 생각하게 한다. 당신으로 하여금 거기에 앉아서 화나게 하는데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나절 화가 나고서야 알게 된다. ‘아이고, 나는 수련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이 마음을 당신에게 제거해 주고 있다. 어쨌든 당신이 편안하려고 한다면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나는 당신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박수)

모순 속에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모순 속에서만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모순이 발생할 때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뚜렷하다. 만약 당신이 모순의 그 일순간을 잡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고집을 부리며 당신의 이치를 우긴다면, 당신이 논쟁에 집착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집착심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만약 더 아래로 깊이 파헤쳐 내려갈 수 있어 그것이 무슨 동기인가를 본다면 이 마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수)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당신은 늘 나의 법신이 당신에게 점화해 주리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법신은 절대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직접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방금 당신들에게 내가 법을 바로 잡을 때 끊임없이 미시적인 데로 돌파한다고 말했다. 왜 할

자 중에서 이런 유의 일이 비교적 많았다. 물론 당신들은 중국 대륙 수련생들처럼 그렇게 일찍이 법을 얻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인식이 것처럼 빨라 그런 과정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특히 최근 한동안에 무척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노수련생의 법에 대한 인식도 아주 높고 일을 함에 본래처럼 그렇게 과격하지 않다. 이는 대단히 좋다. 내 생각에 지금부터 시작하여 더욱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기에 법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부님, 저는 다리를 틀어도 아프지 않은데 저는 정말로 조금합니다. 저에게 난이 없어서 수련이 빠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그 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당신은 모순이 왔을 때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이고, 이는 나에게 제고할 기회를 준 것이구나.’라고. 사람은 모순에 부딪히면 모두 밖으로 미는데, 서로 민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모순이 없는 상황을 조급해하지 않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 모순이 오면 당신들은 도리어 정반대로 모순을 피하려 한다. 모순 자체가 바로 고생 속에서 수련하는 일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사회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이 나이가 많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제고하여 원만에 이르도록 하려고, 당

시간을 형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광년이란 거리를 가리키는데요?

사부: 나는 천체(天體)를 말할 적에 시공간 개념의 거리로써 필요한 시간을 말했다. 동등한 층차 중에서는 거리를 말할 수 있다. 거시적인 데에서 미시적인 데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의 개념은 공간과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한다. 바로 인류에게는 시공의 공간거리와 시간을 통합하는 고정된 개념과 용어가 없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일체 시간을 타파하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어떠한 생명이든지 다만 그 환경 중에 있다면 그 환경의 시간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천체구조를 말할 때 거리의 개념은 시간의 속도와 갈라놓을 수 없다. 같은 경지 중에 존재하는 부동한 세계, 또는 같은 층차 중의 부동한 입자, 그것들 사이를 거리로 가늠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같은 층차 중에서 통일된 시간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데에서 거시적인 데로 통과하는 이런 과정에는 통일된 시간과 통일된 거리가 없다. 우주 중의 일체는, 부동한 층차의 중생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두 대법이 중생에게 창립해 준 것이다. 법을 바로잡는 중에서 단지 바르지 않은 것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예전에 부족했던 새로운 인류의 문화도 창립하고 있다. 나는 내가 분명하게 말했다

고 생각한다. (박수)

제자: 매번 정(情)의 고비를 넘길 적마다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떼어내기 어려운 감각을 느끼는데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개변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부: 당신들이 정을 자신의 이성(理性) 혹은 당신 신체 일부분의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일부러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일보를 기어코 버리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수련하고, 책을 보며, 연공하는 과정을 거쳐 점차 진정하게 법 중에서 법을 인식하는 데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높은 요구가 있다면 되도록 그러한 좋지 못한 사상과 당신이 집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며 당신은 되도록 그것을 담담히 내려놓고 배제해야 한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표준 그 한 부분에 당신이 1초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고정(定)해 준다.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표면을 향해 돌파하고 있다. 최후에 전부 다 돌파되었다면 최후 한 층이 부서질 때 당신은 당신의 애초의 그 사상·생각이 완전히 아님을 발견할 것이며, 당신의 사유방식도 본래와 같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이고, 진정한 본성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생각하

여러분은 모두 수련하고 있기에 당신들은 방금 내가 말한 한마디 말을 듣고 모두 손뼉을 쳤는데, 나는 되도록 법을 얻은 어느 한 제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선의로 모든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가? (박수) 만약 당신들이 모순에 부딪혔을 때 모두 자신의 내심을 향해 찾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찾는다면, 무슨 일이든 다 처리하기 쉽고 그 수련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나도 다만 이렇게 당신들에게 알려줄 뿐이다. 당신들은 실제 수련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임을 알면서도 넘기기가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되도록 당신들에게 잘하고 정진하라고 말할 뿐이다. 모순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순이 없으면 제고할 수 없다. 만약 보도원이 잘하고 수련생들이 잘해서, 여러분 모두 모순이 없는 이런 환경이라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마(魔)가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수련 환경을 잃어버림으로써 제고할 수 없고 되돌아가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모순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람이 고생을 좀 겪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늘 말한다. 당신들은 그 모순 역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박수) 그러므로 지난 한 기간 우리 미국 대법제

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련인이라 최후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아마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도 그의 잘못에 몹시 집착하게 되어 우리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집착으로 변했고 당신은 밖을 향해 찾는 것이 된다. 당신은 그의 잘못을 왜 당신이 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가? 그의 잘못이 왜 당신 마음속에서 그렇게 괴로운가? 그중에는 당신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 일을 그리 크게 보는가? 여러 방면에서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모두 자신을 수련해야 하고, 자신을 봐야 한다.

만약 이 보도원이 정말로 귀찮게 수련했다면 그에게 있는 문제를 당신이 지적해 줄 때 그는 정말로 자신을 볼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도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그가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가 말하면 이 보도원은 그 법을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서 마땅히 크게 개선(改進)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박수) 누구에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련 중이라 모두 자신에게 집착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옳지 않아 다른 사람의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당신의 옳은 것이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이 일체의 일체는 모두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으로 당신을 뒤엎기게 하고 있다.

이 관념을 제외하고 사람은 이 공간 중에서 또 하나 특정한 환경이 있는데, 바로 정(情)이다. 삼계 내는 모두 정에 잠겨 있다. 당신이 이 정을 떼지 못하면 당신은 바로 이 속에 있게 된다. 실제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이 정을 이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아주 명확하게 말했지만, 수련시간이 짧은 사람은 해내지 못하며 노수련생이라도 원만을 이루기 전에는 완전히 해내기가 몹시 어렵다. 수련 중에서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수련 중에서는 일체를 개변할 수 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책을 보고 평소에 또 자신에 대해, 되도록 한 연공인으로서 자신에게 요구한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이 당신을 용련(熔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 어떤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형교류회를 열려고 하며 지금 이미 세 번 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사부: 너무 많다. 그렇게 자주 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런 대형 법회는 내 생각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면

충분하다. 많이 연다면 여러분의 수련에 영향 주기 쉽다. 수련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홍법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정하게 제고하고, 수련의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 홍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어제 “내가 본래 정한 것은 2억 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홍법의 전망은 2억 명입니까?

사부: 정법(正法)을 방해하는 일체 것들은 모두 최후의 청리(淸理) 중에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수련할 시간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더는 만회하기가 불가능하다. 1억 명이 더 있다 해도 틀림없이 당신들과 같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을 따라잡거나,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홍법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여전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또 다음 일보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수련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알게 해야 한다.

제자: 먼 지역에 가서 홍법하는데, 저는 이 때문에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배치하신 수련순서가 교란받게 될까 봐 걱

까?

사부: 수련은 인류사회의 무슨 계층을 보지 않으며 사람의 빈(貧)·부(富)·귀(貴)·천(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만약 같은 층차에서 왔다면 그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틀림없이 같다. 만약 그들이 같은 문(門)이 아니라도 문제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특수한 공헌을 했다면 당신 수련의 노정으로 하여금 한 걸음 크게 전진하게 할 것이다. (박수)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지름길을 찾거나, 돌아가서 무슨 좋은 일을 좀 많이 한다는 이런 것에 힘쓰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결과가 바라는 바와 정반대로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자: 소수 보도원이 대법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어떤 수련생이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만약 이 사람이 법을 파괴했다면 그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그를 교체하지 않는다 해도 내 생각에는 수련생 누구도 더는 그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는 보도원이 아니다. 만약 그가 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선의로 그에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알려줄 수 있다. 그는 인식할 수도 있고

제자: 제가 듣기에 『전법륜』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한 층의 껍질을 벗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수련생들 웃음)

사부: 여러분은 웃지 말라. 내가 보기에 확실히 이런 위력이 있다. 당신이 처음 『전법륜』을 다 보고 난 뒤의 체험을 당신이 두 번째 볼 때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많이 보고 많이 보라고 하는 것이다. 더욱 높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음은 당신이 또 그 한 경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그 한 층의 이치를 알지 못 하게 한다.

제자: 법을 읽는 횟수와 원만을 이뤄 도달하는 층차는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법을 읽는 횟수는 당신의 원만 진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원만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것은 또 당신의 수련과 다른 면을 더해야 한다. 사실 당신이 이처럼 책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제자: 근기가 같은 두 사람이 처한 사회계층이 같지 않으면 그들이 원만에 이른 후에 같은 층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정되는데요?

사부: 이는 그럴 수 없다. 만약 아주 편벽한 지역에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들이 가서 홍법함은 잘못이 없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수련에 지장 주지 않을 것이다. 홍법 일을 하는 한편 자신이 끊임없이 책을 보고 연공하는 이 자체가 바로 수련이다.

제자: ‘사(私)’가 관통할 수 있는 층차는 얼마나 높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이 층차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사부: 생명이 법을 빛나갈 수 있고 생명이 고층차에서 떨어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들에게 이 사심(私心)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사심이 있는 원인은 사람의 사상 중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많은 좋지 못한 관념이 조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사상의 오염이다. 그럼 더욱 높은 층차에 있는 신, 그는 더욱 순결하고, 더욱 성결하다. 만약 그에게 응당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층차의 개념과 형식이 없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저희가 본래 생명이 생긴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 높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로 너무나도 어렵다. 한 가지가 있다면 오로지 당신이 수련만 하면 법을 얻은 사람을 포함하여 나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박수) 나는 꼭 방법을 찾아 당신으로 하여금 원래 당신이 생겨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박수) 더욱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 일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이걸 특수하고 극히 특수한 것이다. 사실 당신들은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생명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본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다. 생명의 가치란 결코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미 만족한 것이며 바로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듣자니 아주 저속하다. 사람은 모두 끝없는 욕망으로 일체를 탐구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그리 좋지 않다. 신은 이런 마음이 없다. 우주는 중생으로 말한다면 끝없이 넓은 것으로서 끝까지 보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 더욱 높은 것을 알려고 하는 그것은 끝이 없는, 일종의 두려운 것으로, 그것은 안 된다.

예전의 수련 중에서는 확실히 대단히 높게 수련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고생을 대단히 크게 겪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사례를 들겠다. 내가 이 일을 할 적에 전력을 다해 끊임 없이 미시적인 데로 돌파하면서 법을 바로잡았는데 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했다. 나는 이렇게 어느 곳까지 했는가? 바로 인체가 있는 곳을 훨씬 넘어선 곳까지 했다. 그곳은 전부 다 물질이고, 물질형상으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가 크게 변동되는 특수한 역사 시기에 그런 몇몇 신이 그 층차 중으로 휘말려 들어갔는데, 내려올 수 없었으므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껴 줄곧 원래 곳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이 단계에 와서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자 그들은 아주 좋아하였다. (박수) 어떤 말은 들으면 마치 아주 허황한 것 같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나는 바로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춘 리홍쯔(李洪志)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법리(法理)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모두 진실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능력의 체험은 속인이쪽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들을 동화되게 하고, 승화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대법의 범리로써 일체 원만을 이룰 수 있다.